

2015 / 06 / 30 (TUE)

IT (소프트웨어/인터넷/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국내 IT 업종 Comment

전일 국내 IT섹터는 전반적인 하락세. 그리스 채무협상 결렬로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며 투심 위축. 그리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수급측면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매수세로 다우기술, 다음카카오 강세. 반면 외인의 매도세로 파트론, LG전자, 컴투스 약세.

종목별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수혜 기대감에 다우기술이 상한가 기록.

국내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86.18	-0.6%	-7.1%	-113 억	394 억
KRX Semicon	1,885.02	-1.2%	0.4%	-97 억	266 억
(코) 반도체	980.71	-3.2%	23.0%	-21 억	-19 억
(코) IT H/W	407.36	-3.2%	16.9%	-100 억	-13 억
(코) IT S/W	2,260.23	-2.0%	13.1%	47 억	232 억

하드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자	1,281,000	0.2%	-3.5%	56 억	7 억
LG전자	47,150	-4.8%	-20.2%	-32 억	-179 억
삼성SDI	113,500	-2.2%	-2.2%	-1 억	13 억
삼성테크윈	29,250	-4.3%	22.6%	-35 억	-28 억
서울반도체	15,750	-3.4%	-22.0%	1 억	-1 억
신도리코	65,600	-1.4%	-3.2%	-2 억	0 억

반도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SK하이닉스	42,600	1.4%	-10.8%	-167 억	248 억
이오테크닉스	91,300	-2.6%	-27.1%	-1 억	3 억
월익IPS	13,700	-3.2%	-1.8%	26 억	-10 억
리노공업	50,300	-2.1%	31.3%	-3 억	7 억
유진테크	16,350	-6.3%	1.2%	-6 억	-1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49,500	-1.6%	-15.0%	-31 억	21 억
SK C&C	268,500	-3.9%	25.8%	-69 억	82 억
포스코 ICT	5,290	1.7%	-0.2%	-2 억	2 억
다우기술	28,300	29.8%	136.8%	12 억	37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51,000	-1.1%	-8.6%	126 억	-75 억
다음카카오	126,000	2.0%	1.9%	97 억	208 억

디스플레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LG디스플레이	25,150	-1.0%	-25.3%	51 억	-19 억
에스에프에이	48,750	1.6%	-1.8%	-6 억	18 억
솔브레인	48,250	-0.7%	50.1%	-4 억	6 억
덕산하이메탈	10,900	-3.5%	-2.2%	0 억	-4 억

전자부품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전기	50,800	-3.2%	-7.1%	-7 억	-30 억
LG이노텍	104,000	-1.9%	-7.6%	21 억	2 억
파트론	8,380	-6.1%	-28.7%	-29 억	3 억
루멘스	4,445	-6.4%	-37.0%	-5 억	0 억
일진디스플레이	8,850	-3.6%	29.8%	-1 억	4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8,500	-3.2%	9.1%	-151 억	127 억
컴투스	125,500	-4.3%	-3.2%	-36 억	18 억
NHN엔터테인먼트	58,400	2.5%	-33.3%	4 억	3 억
게임빌	85,800	-3.2%	-28.9%	9 억	-2 억
위메이드	35,800	-4.0%	-5.3%	0 억	-2 억
선데이토즈	16,450	-2.7%	-4.4%	0 억	3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골프존	127,000	-2.7%	403.0%	0 억	5 억
한글과컴퓨터	18,000	-0.3%	-10.9%	2 억	-13 억
코나아이	32,500	0.9%	-3.6%	-44 억	14 억
슈프리카	23,550	-0.6%	-7.5%	3 억	0 억

해외 IT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8.45	-2.3%	1.0%
MSCI Internet	159.32	-2.6%	4.3%
MSCI Software	164.43	-2.1%	0.5%
MSCI Semicon	210.71	-3.0%	-4.3%
MSCI IT Services	121.98	-2.3%	3.6%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541.25	-2.1%	2.0%
Facebook	85.80	-2.5%	10.0%
Tencent	153.10	-4.3%	36.1%
Baidu	200.50	-1.4%	-12.0%
Yahoo	38.91	-2.9%	-23.0%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4.37	-2.0%	-4.5%
Oracle	40.42	-1.4%	-10.1%
SAP	70.68	-3.1%	1.5%
EMC	25.99	-1.7%	-12.6%
Symantec	23.26	-2.1%	-9.3%

Handset	close	1D	YTD
Apple	124.53	-1.8%	12.8%
Nokia	6.91	-4.4%	-12.1%
Lenovo	10.32	-5.7%	1.2%
ZTE	19.50	-2.7%	15.8%
HTC	74.2	-3.6%	-47.7%

Semicon	close	1D	YTD
Intel	30.39	-2.0%	-16.3%
Qualcomm	62.62	-3.2%	-15.8%
Texas Instruments	51.52	-2.6%	-3.6%
Micron	18.73	-4.7%	-46.5%
Toshiba	416	-1.4%	-18.8%
Renesas	890	-3.5%	8.1%
STMicro	8.20	-3.4%	9.8%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62.97	-1.5%	1.6%
HP	29.97	-1.8%	-25.3%
Accenture	96.68	-2.3%	8.3%
Fujitsu	700	-3.5%	8.6%
NTT Data	5,300	-3.6%	17.4%
CSC	65.75	-1.5%	4.3%

Hardware	close	1D	YTD
GE	26.64	-1.7%	5.4%
Panasonic	1,709	-3.7%	19.8%
SONY	3,773	-2.7%	52.6%
Whirlpool	173.77	-2.3%	-10.3%
Electrolux	259.60	-3.3%	13.5%
Haier	20.25	-3.6%	9.7%

Components	close	1D	YTD
Murata	21,155	-3.0%	59.7%
KYOCERA	6,306	-4.1%	13.5%
Nidec	9,111	-0.3%	16.0%
TDK	9,340	-2.9%	30.4%
Ibiden	2,112	-1.5%	18.1%

Display	close	1D	YTD
Sharp	154	-2.5%	-42.5%
Japan Display	466	-2.5%	25.9%
AUO	4.33	-1.4%	-14.9%
Innolux	15.20	-13.1%	-1.3%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126 억	SK하이닉스	-167 억
다음카카오	97 억	엔씨소프트	-151 억
삼성전자	56 억	SK C&C	-69 억
LG디스플레이	51 억	코나아이	-44 억
월익IPS	26 억	컴투스	-36 억
아프리카TV	24 억	삼성테크윈	-35 억
LG이노텍	21 억	LG전자	-32 억
STS반도체	18 억	삼성에스디에	-31 억
다우기술	12 억	파트론	-29 억
웹젠	9 억	다원시스	-21 억
게임빌	9 억	실리콘웍스	-16 억
KG이니시스	9 억	에스앤에스텍	-11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하이닉스	248 억	LG전자	-179 억
다음카카오	208 억	NAVER	-75 억
엔씨소프트	127 억	삼성전기	-30 억
SK C&C	82 억	삼성테크윈	-28 억
다우기술	37 억	웹젠	-23 억
삼성에스디에	21 억	LG디스플레이	-19 억
사람인에이치	19 억	한글과컴퓨터	-13 억
컴투스	18 억	MDS테크	-12 억
에스에프에이	18 억	월익IPS	-10 억
유니테스트	18 억	KH바텍	-9 억
코나아이	14 억	테스	-8 억
삼성SDI	13 억	하나마이크론	-6 억

반도체 / LCD 패널 가격

Product	close	1D	YTD
DXI (Index)	6757.26	-0.8%	-11.0%
DDR3 2Gb (Spot)	1.51 \$	-0.7%	-31.7%
NAND 64Gb (Spot)	2.62 \$	-0.4%	8.3%

Product	Price	2W	YTD
DDR3 4Gb (Contract)	2.75 \$	0.0%	-23.4%
NAND 64Gb (Contract)	2.61 \$	0.0%	-5.4%
LCD TV 32" Open Cell	83 \$	-3.5%	-11.7%
LCD TV 50" Open Cell	199 \$	-0.5%	-1.0%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다우기술	29.8%	주가급등

다우기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수혜 기대감에 급등

다우기술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급등세. 금융위는 지난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보유 지분 한도 현행 4%에서 50% 완화 방침을 밝힘.

법안 통과 및 시행 소요 시간을 고려 시 내년 키움증권 - 다우기술(키움증권 지분 47.7%)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가능성은 점증할 전망.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시 연결/ 개별 실적이 동시에 확대될 전망.

그 동안 다우기술은 단순히 키움증권 지분가치 대비 저평가 매력만 부각. 키움증권을 제외한 타 계열사의 성장 모멘텀이 충분치 못했던 결과. 그러나 연초 이후 사람인에이치알과 한국정보인증의 실적성장 및 추가호조가 부각되고 있음.

특히 사람인에이치알은 본격적인 실적개선 예상. 매출의 선행지표인 PC 순방문자수가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압도적인 1위로 부상 중이며 모바일 포털 구직 광고 유료화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36.6% 급증.

사실상 증권 플랫폼에 해당하는 키움증권과 HR 플랫폼 1위 사람인에이치알, 향후 인터넷은행 설립 또한 기대된다는 점에서 다우기술은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보유한 지주회사로서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전망.

평균 P/E 20배를 넘어서는 키움증권과 사람인에이치알을 보유한 다우기술의 '15년 예상 P/E는 9배에 불과. 사업 지주회사형태로 자체사업 매출 비중이 30%를 훌쩍 상회할 전망이고, 데이터와의 합병 우려도 과장된 상황. 향후 인터넷은행 설립에 따라 추가 밸류에이션 상황 여지 존재.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C&C	-3.9%	최근이슈

SK C&C도 '4자 물류' 추진, 대형 IT서비스, 사업재편 본격화

오는 8월 1일 SK와 합병을 통해 새로 태어날 SK C&C가 4자 물류(4PL)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 SK C&C가 물류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삼성SDS와 같이 물류 BPO 사업을 주력 성장모델로 삼고 있는 대형 IT서비스업체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특히 SK그룹이 가지는 외형을 고려할 때, SK C&C가 물류에 본격 뛰어들 경우 그룹 매출을 포함해 연매출 규모가 조단위가 훌쩍 넘어설 전망.

SK C&C는 29일 서울 광장동 워커히 호텔에서 'ICT 테크 포럼(Tech Forum)'을 개최하고 융합 보안 및 물류 시장은 직접 사업자(Player)로 진출할 방침이라고 밝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에 기반해 물류량 예측·운송최적화를 실현하는 '융합물류 ICT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

삼성SDS가 물류 솔루션인 '첼로(Cello)'를 기반으로 삼성 그룹사 및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SK C&C 역시 독자 물류 플랫폼을 기반으로 4자 물류 및 물류 BPO 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예상.

현재 SK그룹의 경우 제조업 계열사로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SK케미칼, SKC, SK하이닉스 등을 보유. 대부분 B2B 시장에 특화돼 있는 업체로 특히 수출 등 해외 시장에서의 물류가 활발한 편. 또, 화학 및 에너지 등 특수 물류 분야에 경험이 있어 향후 특화 시장으로 개척할 여지도 있는 편.

따라서 SK C&C는 물류 역량을 해외에 집중해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글로벌 ICT 융합 시장을 주도하는 '세계 일류 ICT 회사(World Top-tier ICT Company)'로의 성장 '가속화'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

물류 시장은 IT와의 융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지목. 구글과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IT 업체들이 글로벌 물류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배송 최적화와 지능화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성은 향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

SK C&C는 오는 8월 1일 SK 합병법인 출범을 계기로 SK텔레콤과 함께 SK그룹의 ICT 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한편 실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적으로 검증된 분야인 물류 IT시장에 대한 직접 진출을 통해 성장성을 다각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현재 IT서비스업계에서 물류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곳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SDS와 코오롱베니트 정도가 꼽힘.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삼성전자 1분기 D램 매출 역대 최대치 기록

삼성전자가 2015년 1분기 D램 매출 52.81억달러(5.943조원)를 기록. 전년 동기(37.38억달러)보다 무려 41.3% 성장한 것으로 시장조사기관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 29일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이같은 D램 매출을 올려 시장점유율 44.1%를 차지. 이는 2011년 3분기(45.0%)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는 33.01억달러의 매출을 올려 27.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3위는 25.37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미국 마이크론(21.2%).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을 작년 4분기(41.7%)보다 2.4%pt 끌어 올렸고 전년 동기(37.2%)보다는 무려 6.9%pt나 수직 상승.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작년 4분기와 같은 6.4%pt 차이로 지켜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강이 90% 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과점체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매출과 역대 2위 점유율을 기록한 것은 기존 장비비를 이용해 20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하고 향후 10나노 D램으로 가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덕분으로 해석됨.

삼성전자는 새로운 개념의 개량형 이중 포토 노광기술과 초미세 유전막 형성기술로 20나노 공정 안착에 성공. 삼성전자는 20나노 공정을 적용해 모바일, 서버, 그래픽 D램 등 전 제품 라인업에 걸쳐 신제품을 내놓고 D램 용량도 기존 최고 용량인 4기가비트에서 6기가비트, 8기가비트 제품을 연달아 선보임.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20나노 공정은 통상 6~7개월이면 경쟁사가 따라오던 기존 시장구조와 달리 1년 넘게 여러 라인업 제품이 출시되도록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후발 파운드리 업계도 14나노 핀펫 공정 대응 총력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14·16나노 핀펫(FinFET) 공정의 시스템반도체 칩을 양산 혹은 개발 완료한 가운데 후발 파운드리 업체들도 관련 공정을 상용화하기 위해 노력 중.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UMC는 내년 하반기 14나노 핀펫 공정 칩을 양산한다는 계획. 이 회사는 최근 영국 반도체 설계자산(IP) 업체인 ARM과 미국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업체인 미국 시뮬시스와 협력해 14나노 핀펫 공정의 ARM 코어텍스-A 코어의 테스트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고 발표.

UMC는 선두 업체와 기술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기 위해 20나노 공정은 양산 없이 건너 뛴 예정. UMC 측은 올 연말 14나노 핀펫 공정의 테이프-아웃(Tape-Out)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파운드리 업체들이 말하는 테이프-아웃이란 생산을 위한 일련의 준비 과정을 마쳤다는 의미.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는 화웨이, 쉐커, 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와 중국 상하이에 'SMIC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R&D 센터'를 조인트벤처 형태로 설립할 계획. 이들은 이 R&D 센터에서 14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한 뒤 SMIC의 생산 라인에 해당 공정을 도입할 계획. SMIC 등은 정확한 양산 시점을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의 국가 IC 산업 개발 목표 중 하나인 '2020년 14·16나노 IC 대량 양산' 계획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힘.

특히 화웨이(자회사 하이실리콘)와 쉐커가 JV설립에 참여하는 만큼 공정 도입 초기, 파운드리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14나노 핀펫 공정으로 칩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인텔 뿐.

글로벌파운드리(GF)도 삼성전자로부터 공정 기술을 들여와 조만간 칩 생산에 돌입할 계획. TSMC는 올 하반기부터 16나노 핀펫 공정 칩을 양산한다는 계획. 업계 관계자는 "후발 업체들이 10나노대 공정 개발을 완료하면 고성능 시스템반도체를 다루는 팹리스 업체들의 개발 사업에도 활기를 띠 것"이라고 언급.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업계동향

마이크론 D램 출하 부진, SK하이닉스엔 '호재'

마이크론의 출하량 축소는 SK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이슈라는 분석 제기. 최근 D램 수요 부진 우려 속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된 마이크론의 회계년도 4분기 실적 전망치가 컨센서스를 하회. 마이크론은 이달 4일로 마감한 회계년도 3분기 D램 출하 증가율이 -2%였으며, 4분기 출하량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제시.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 것은 D램 가격 하락과 더불어 마이크론의 D램, 낸드 출하 증가율이 극히 저조한 것이 주된 이유. 마이크론은 컨콜에서 현재 마이크론 D램 재고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마이크론의 저조한 출하 증가율은 미세공정 전환의 부진과 낮은 수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

마이크론의 올해 출하 증가율은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올해 삼성전자(36%), SK하이닉스(26%), 기타 업체(12%)들의 출하 증가율까지 감안하게 되면 올해 시장 D램 출하 증가율은 기존의 24%에서 21%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D램 업황과 SK하이닉스에게 매우 긍정적인 요인.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 상승과 하반기 D램 업황 안정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

올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출하 증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생산 부진에 따라 하반기 D램 수급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올해 분기 D램 수급은 1분기, 2분기 각각 5.3%, 4.3% 공급과잉에서 3분기와 4분기에는 1.1%, 4.8%의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LG전자, Set업체 경쟁 심화로 실적부진 전망

LG전자의 2Q15 매출액 15,075조원(QoQ 7.7%, YoY -2.0%), 영업이익 3,370억원(QoQ 10.5%, YoY -44.3%) 예상. 15년 실적 전망치도 하향조정되며 주가도 약세.

최근 Set업계 경쟁 심화 추세. 선진국 Premium 가전 업체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M&A 활발. 현지 업체 M&A를 통해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 전세계 가전 시장 성장 둔화 국면에서 M&A를 통한 M/S 확대와 비용 절감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

신흥 가전 업체 약진도 동사의 우려 요인. Xiaomi는 Wearable 기기, 공기청정기에 이어 에어컨까지 사업 영역 확장 중. 중국 TV 시장 1위 업체인 Skyworth도 TV에 이어 생활 가전 시장에 진입. 신규 경쟁자 진입에 따라 경기회복 여부와는 무관하게 Set업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상기 우려와 실적 하향 조정 영향으로 최근 주가도 약세.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한 에어컨과 G4 출시 효과 소멸로 2H15 동사 영업 환경은 1H15 대비 비우호적일 전망. 따라서 당분간 주가 Catalyst 부재 판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30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6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6월 30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